

몸과 장소의 기억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억 ‘대구 근대路’

안병학(송현여자고등학교)

1. 수업 개요

가. 주제 : 몸과 장소의 기억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억 ‘대구 근대路’

나. 주제선정 이유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학명은 잘 알듯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다. 생각하는 사람이 현생 인류를 학문적으로 규명하는 명칭이다. 우리들은 이 생각들을 기억으로 저장함으로 개체로의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집단으로 인간은 공동체의 동일한 기억을 통해 집합적 기억을 갖고 동질성을 획득한다.

생물학적 몸을 가진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게 되는 것일까?

사회학적으로 우리는 특정한 공간, 장소성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소성은 우리의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일상적으로 재구성되는 집합적 기억을 통해 공동체로의 동질성을 획득하는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된다.

대구 도심재생사업이자 역사적 교육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순종황제 어가길’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되었다. 대구의 새로운 기억의 장소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경관개선과 다크투어리즘의 공간으로 구성된 새로운 기억의 장소가 역사적 기억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논쟁의 중심에 놓인 새로운 장소와 기억의 방법에 대해서 일방향적 수용이 아니라 생물학적 몸을 지닌 개체성을 수용하며, 각자의 기억을 새로이 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의 기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선정했다. 몸과 장소의 기억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억 ‘대구’ 수업은 ‘기억’을 키워드로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교과를 융합한 체험 중심의 나눔과 공감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력적 수업이 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된 융합수업의 경험에 학생들의 분과학문체계에 칸막이 쳐진 학습과 기억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이 삶으로 살아가 세상에서 실질적 교과융합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다. 성취기준 및 수업 흐름

[통합과학]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고, 기억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통합사회] 도시 재생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시 재생에 따른 영향과 장소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사]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를 분석하고, 순종황제 어가길에 대한 기억의 가치를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모둠의 기억] 모둠활동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억의 공유] 통합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둠별 공유할 주제선정, 내용구성, 발표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활동 과정(일자)	활동형태	수업 내용 (성취기준)	관련 교과(단원)
몸의 기억 10.18.(수)	전체 활동 모둠 활동 개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수업3 진행 안내 및 모둠 구성 ✿ [몸의 기억] 흥미 유발 <p>“생물의 특징 중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들은 각각의 구조와 기능을 한다.”</p> ✿ [몸의 기억] 세포의 구조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 - 기억을 조작하는 부분의 세포는? ... (생물학) 기억되는 것과 기억되지 않는 것 통합과학 성취기준 <p>[10통과05-02]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서 생체 촉매의 역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생체 촉매를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p>	통합과학 II. 시스템과 상호작용 3. 생명시스템 01. 세포막의 기능
장소의 기억 10.23.(월)	전체 활동 모둠 활동 개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의 기억] 대구 ‘근대路의 여행’에 따른 장소성과 기억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로(路)의 여행’ 도시재생 사업의 실시에 따른 공간(장소)의 변화? ✿ ‘근대로(路)의 여행’과 장소성의 변화 및 기억의 창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그에 따른 공간의 변화 및 장소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p>통합사회 성취기준</p> <p>[10통사03-0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p>	통합사회 I. 삶의 이해와 환경 3. 생활 공간과 사회
역사적 기억 10.25.(수)	현장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기억] ‘근대로(路)의 여행’ 순종황제 어가길 투어(현장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는 사실들 속에서 선택된 기억의 재구성 - 순종 어가길 조성 이유, 과정, 논란 내용 확인 <p>현장체험 활동 과제 : 순종황제는 누구인</p>	한국사 V.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 국가 수립 운동 2. 근대 국가 수립 노력 - 근대 시설 3. 일제의 침략과

		<p>가? 순종황제의 납순행(어가행렬)의 역사? 대구 순종황제의 어가행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순종황제의 어가행렬 무엇을 기억해야할까? 순종황제 어가길 투어 도심재생 사업에서 어떤 기억을 만들고 있는가? 순종황제 어가길 투어의 역사적 기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위한 준비</p> <p>한국사 성취기준</p> <p>[10한사05-02]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사회 변화를 탐구한다.</p> <p>[10한사05-03]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의병 운동, 애국 계몽 운동, 경제적 구국 운동의 내용을 파악한다.</p>	<p>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p>		
↓		<p>★ 순종황제 어가길 투어 현장체험 활동 결과 나눔(모둠별 진행)</p> <p>★ 수업활동 결과 나눔 발표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과 장소의 기억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억 ‘대구’ 활동 결과 나눔 <p>* 프리젠테이션 준비 : 4~5인 1팀, 기준 수업 활동 내용의 통합적 재구성(또는 특정 영역과 주제 집중도 가능)을 통해 활동 결과 발표 자료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내용 = ‘대구’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지리)학적,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 • 발표 방법 = 모둠별 이젤패드를 이용 또는 프리젠테이션프로그램 이용 발표자료 구성, 정리 후 발표(모둠원이 모두 역할을 나누어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p>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p>		
↓	<p>기억 수업활동 나눔 및 정리 10.28.(토) 오전</p>	<p>개별 활동</p> <p>모둠 활동</p>	<p>기억 수업활동 나눔 발표 10.28.(토) 오후</p> <p>모둠 활동</p> <p>전체 활동</p>	<p>★ 프레젠테이션 시연 및 최종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별 프레젠테이션 시연 후 미비점 보완하기(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 점검) <p>★ 활동 결과 나눔 프레젠테이션</p> <p>* 발표 우수팀 선정(상호평가 등)</p>	<p>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p>

라. 과정평가 기준

평가 영역	평가 기준	평가 척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부족	많이 부족
		20	18	15	12	10
과학	•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고, 기억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	• 도시 재생의 정의 및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시 재생에 따른 영향과 장소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역사	•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를 분석하고, 순종황제 어가길에 대한 기억의 가치를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교과 통합	• 모둠활동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통합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둠별 공유할 주제선정, 내용구성, 발표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종합 평가	[정성평가(특기사항)]				점수 합계	

2. 수업 활동 자료

가. 몸의 기억

- 1) 생물이란?
- 2) 생물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은 어떨까?
 - 가) 탐구1.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구조와 기능
 - 나) 목표 :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다.
 - 다) 준비물 : 세포모형 키트(액화수지, 경화제, 투명컵, 꼬지막대, 틀 용기 2개, 종이컵 1개, 하드스틱, 도안), 가위
 - 라) 탐구활동 과정
 - 1) 도안의 세포소기관들을 찢어지지 않게 떼어낸다.
 - 2) 세포의 틀을 만들 용기 위에 뜯어 낸 세포소기관을 배치하여 놓고 세포의 배치는 도안의 세포그림을 참고한다.
 - 3) 투명컵에 액화수지와 경화제를 모두 넣고 꼬지막대 섞어준다. (주의!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천천히 저어준다.)
 - 4) 각각의 종이컵에 섞은 액화수지와 경화제를 덜어준다. (주의! 액화수지와 경화제의 양이 많을수록 빨리 굳으므로 두 재료를 섞고 나누는 단계까지 빠른 시간에 안에 진행 한다.)
 - 5) 액화수지와 경화제가 서로 반응하여 종이컵의 온도가 올라갈 때 까지 약 10~12분 정도 그대로 두고 종이컵이 따뜻해지면, 하드스틱을 이용해 섞은 액화수지와 경화제를 도안 위에 뿌려준다.
 - 6) 용액이 넓게 퍼질수록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드스틱을 이용하여 세포 중심으로 용액을 뿌려주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주의! 종이컵 째로 도안 위에 용액을 붓게 되면 도안들이 움직여 서로 겹침으로 반드시 하드스틱으로 흘러준다.)
 - 7) 하드스틱으로 약간씩 움직인 세포소기관을 다시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굳을 때 까지 그대로 둔다. (주의! 완전히 굳기 위해선 반나절정도 걸리므로 개인 보관한다.)
 - 8) 다 굳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가위를 이용해 모서리를 정리한다.
 - 3)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어떻게 전환될까?
 - 4) [몸의 기억] 수업 마무리

생물학적 몸의 특징과 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일까? [오늘 수업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나. 장소의 기억

1) 공간과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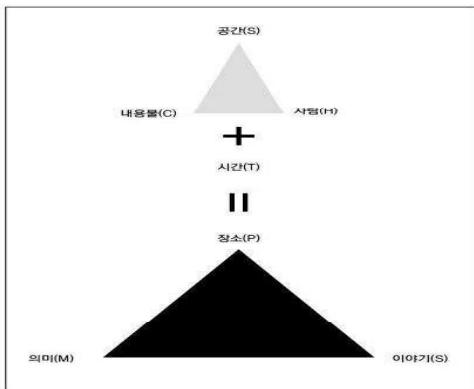
가) 공간과 장소의 사전적 의미

- 공간(空間) : [명사] 아무것도 없는 빈 곳
- 장소(場所) : [명사]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나) 공간과 장소의 지리적 의미

- 내가 사는 이곳은 공간일까? 장소일까?
- <http://www.hwangry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

장소(Place)와 공간(Space)은 지리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간(Space)은 3차원적인 단순한 물리적 영역으로 정의되는 추상적 개념이다. 공간은 오로지 효율성, 기능성, 합리성을 기준으로 사고 되는 대상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장소(Place)는 맥락(Context), 즉 인간의 경험과 시간, 문화와 가치관 등을 포함하면서 형성되는 구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이 장소가 되는 과정>

이후 투안(Yi-Fu Tuan)은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동질적인 공간은 우리가 그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장소가 된다.”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해 장소감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3차원적인 공간에 머물면서 체험하고, 자신이 머물며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본인들만의 인식인 장소감(Sense of Place)을 갖게 되며,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이미지화된 기억으로 장소를 만들어 나간다. 여기서 장소감이란 인간에 의해 장소에 부여된 의미를 통해 장소가 갖게 되는 성격을 말한다.

똑같은 뒷산을 오르면서도 누군가는 “산을 왜 올라, 산은 바라만 보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남은 거야, 왜 가도 가도 끝이 없어”라고 외친다면 그에게 뒷산은 의미 없는 공간일 뿐이고, “이 산은 산나물이 아주 많아. 이맘때 난 항상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한가득 담아가곤 해”라고 한다면 그에게 뒷산은 채집의 장소, “이 산은 계절마다 나뭇잎과 바위의 형태와 색깔이 오묘하게 어울려서 악상을 떠올리는데 좋은 영감을 줘”라고 한다면 이 산은 아이디어 제공 장

소인 것이다.

장소감은 나의 과거(기억), 현재(체험), 미래(바람)를 반영하는 자아이기에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에 대한 논리적인 인식이 없다면 내 삶의 한 부분이 뻥 뚫린 빈 공간으로 남겨지고, 이는 연속적으로 미래 나의 장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을 천천히 인식해보고 나의 장소(my place)를 경험하면서 인생의 한 부분을 의미 있게 채색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송현여고는 어떤 장소가 되었나요?

다.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이란?

우리나라의 도시는 산업화로 인구가 급증하고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생활 기반 시설²⁾ 부족과 불량 주택 문제 등이 나타났다. 또한 상업·업무 기능의 발달로 기존의 건물들을 현대식 첨단 건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 불량 주택 지구의 발생,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 증대,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도로 및 주차장의 필요성 증대, 업무 환경의 변화로 업무용 빌딩의 첨단 시설 확충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해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도시 계획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이란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재개발, 도시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 도시쇄신(urban renovation) 등의 복합어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생활 기반 시설 : 학교, 공원, 병원, 상·하수도, 보육·양로 시설 등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부산 감천 문화 마을>

2) 도시재생(재개발)의 유형

도시 재생(재개발)의 유형은 크게 도심 재개발과 주택 재개발로 구분된다. 도심재개발이란 도심의 낡은 건물이나 주거 지역을 상업·업무 기능의 첨단 건물로 바꾸는 사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도심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업무용 고층 건물과 고급 전문 상가로 개발되었다. 또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시설의 배치와 기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고층 건물의 입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 졌으며, 공공 주차장 개발 및 주차 공간 확보로 교통 문제가 완화되었고, 보행자 공간 및 공원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형성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슬럼³⁾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불량 주택 지구는 대부분 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상가나 공공건물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개발될 경우, 이권이 개입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개발 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청계천 재개발 - 도심 재개발>

3) 슬럼(slum) : 산업 혁명 이후 근대적인 도시의 출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이주로 형성된 주거지가 슬럼의 기원이다. 슬럼은 주거 조건이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편이며, 불안정한 고용이나 임시 취업,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 계층들이 주로 거주한다.

라. 도시재생(재개발)의 방법

현재의 불량·노후 상태가 관리나 이용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시키는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 형태이다. 수복재개발은 다양한 도시민의 우선순위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구조에 대한 변형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점이 있다.

기존의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시가지를 정비하는 방식이다. 전면 재개발 방법은 원거주민의 낮은 재정착률,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개발 전(왼쪽)과 개발 후(오른 쪽)의 서울시 관악구 난곡 지역 - 전면 재개발>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의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아직은 불량 또는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 조치로 시행되는 재개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개발 대상 지역 자체를 보존하고 건축물이 훼손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역환경을 개선하면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마. 도시 재생의 영향과 바람직한 도시 재생

도심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고층 건물이 들어서 토지 이용이 고도화된다. 또한 도로와 교통 시설이 확충되면서 주차 공간과 보행 공간, 도심 공원 등이 확보되어 경관이 개선된다. 주택 재개발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정비되고, 생활 기반 시설이 개선되어 범죄나 비행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개발이 미흡하게 진행된 상태로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경우 재개발 지구 주변의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일도 발생한다. 또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주변 지역 사회와 교류가 단절되거나 교통 혼잡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존 시가지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소수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고 기존 주민들이 철거민으로 전락하여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 재개발은 많은 이해관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구성원인 주민과 지역 단체, 행정 기관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재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수준이나 토지 소유 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주민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재개발 방식이 시행되어야 한다.

바. 대구 근대 골목 투어 - ‘근대路의 여행’

- 자료출처 1. 골목길로 떠나는 근대로의 여행, 류태희, 국토연구원
- 2. 천 개의 골목, 천개의 스토리가 함께하는 근대로의 여행, 김성진, 한국문화연구원

1) 대구 중구 도심재생사업

대구시 중구는 대구광역시의 중심상권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며 금융, 유통,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이다. 대구시의 형성과 성장의 축으로서 사회·경제적 번영을 견인하고 지역문화가 발현·존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왔다. 이곳에는 근현대기의 문화, 예술,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곳곳에 생활사적 향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켜를 달리하며 사람들의 기억이 겹겹이 쌓여 독특한 문화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대구읍성과 경상감영공원, 일제 강점기의 가로구획 등에 기초하여 형성된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급격한 도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가로 골격의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도심은 인구공동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유통산업 환경변화로 도심상권이 축소되어 지역의 침체가 가속화 되었으며, 도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게다가 중심상업지의 특성상 소수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즉시적이고 단조로운 자본문화가 양산되어 현대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와 문화적 욕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원도심의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수많은 근대건축물은 지정·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 못한 채 개인 소유로 관리되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전·활용되지 못하고 멸실·철거되는 위기에 처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제도적 공백에 의해 방치되고 사라져가는 원도심과 이를 기반으로 존속되어왔던 도시문화자원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것은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고, 새로운 세대들은 존재 유무조차 모르는 원도심이 처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창고 속에 묻혀 있던 보물들을 꼬집어내듯 도심 속 자원들을 발굴하고 갈고 닦아 잘 보존하는 한편 행정, 전문가와 함께 도심 공간 저마다의 특징과 숨은 이야기를 찾아 스토리를 입히는 도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근대골목투어를 시작하였다.



<동성로의 도심재생사업 전(왼쪽)과 후(오른쪽)>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된 원도심 재창조사업을 통해 탈바꿈한 오늘날 대구시 중구 중심 거리는 하루 유동인구 60만 명의 보행자 전용도로이자,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만남과 쇼핑,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흥배전기기가 지하로 이설되고, 수십 년간 거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노점상들이 일제 정비된 후에는 대구읍성길 재현, 야외무대와 광장 조성, 간판 정비, 가로수 식재와 벤치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바뀌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와 골목문화 해설사 양성,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볼거리도 없었던 원도심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관광명소가 되었다. 골목투어라는 새로운 문화기능이 도입된 도심공간에는 연간 5만여 명이 넘는 근대골목 탐방객들이 드나드는 등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수학여행 코스로도 각광을 받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발돋움하였다.

2) 대구 근대 골목투어

- 자료출처 :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관광(<http://www.jung.daegu.kr/new/culture/pages/main/>)

대구 근대골목투어는 다섯 개의 정규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길이는 총 14.61km이다. 코스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발전이 시작된 경상감영과 일제 강점기 때 번성했던 북성로 거리를 둘러보는 ‘제1코스 경상감영 달성 길’, 대구 근대 100여 년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2코스 근대문화골목’, 각종 주얼리와 귀금속이 즐비하며 도심 중에서도 중심인 동성로가 포함된 ‘제3코스 패션한방 길’, 최근에는 김광석 열풍을 따라 방천시장 옆에 조성된 김광석 길이 있는 ‘제4코스 삼덕봉산문화길’, 대구 천주교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제5코스 남산100년 향수길’이 있다.



대구 도시 재생 기획안(내가 시장이 된다면♪)

모둠명/ 모둠원 :

▶ 선정 지역

▶ 선정 이유

▶ 재생 유형 및 방법

▶ 재생 테마

▶ 재생 사업 통해 예상되는 영향

▶ 기획 내용 스케치

사. 역사적 기억(순종 황제 어가길 투어)

[성취기준]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갈등의 이유를 분석하고, 순종황제 어가길에 대한 기억의 가치를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료 이용] 순종 어가길 조성 사업을 역사적 측면과 문화•관광적 목적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자료 이용] 순종 어가길을 둘러싼 갈등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현장 체험] 순종 어가길 조성 사업의 목적이 체험활동을 통해 충실히 실현되고 있는지 평가 할 수 있다.

[현장 체험 후 나눔] 순종 어가길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기억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아. 기억 수업 활동 나눔 및 정리

[성취기준 _ 모둠의 기억] 모둠활동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순종황제 어가길 투어 현장체험 활동 결과 나눔(모둠별 진행)

[나눔활동 과제 예시1] 순종 어가길 조성사업은 무엇 때문에 시작했나요?

[나눔활동 과제 예시2]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갈등은 무엇 때문인가요?

[나눔활동 과제 예시3] 순종 어가길의 각종 기억을 위한 보조적 장치들•설명(기억)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기

수업활동 결과 나눔 발표 준비

나눔 발표 주제: 몸과 장소의 기억과 함께하는 역사적 기억 ‘대구 근대路’ 활동 결과 나눔

* 프리젠테이션 준비 : 4~5인 1팀, 기존 수업활동 내용의 통합적 재구성(또는 특정 영역과 주제 집중도 가능)을 통해 활동 결과 발표 자료 준비

- 발표 내용 = ‘대구’에 대한 생물학적, 사회(지리)학적,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
- 발표 방법 = 모둠별 이젤패드를 이용 또는 프리젠테이션프로그램 이용 발표자료 구정리 후 발표(모둠원이 모두 역할을 나누어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자. 자료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 어진



대구 중구 복선으로 오토바이 금지에 위치해 있는 순종형제 0기급의 낙후된 현재 모습, 중구청은 국비를 포함해 70억원을 들어 오는 2013년부터 3년간 차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구 북성로에 '순종의 어가길' 되살아 난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선종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들이 도성 10리 밖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 제 역시 이듬해 8월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자리를 잃고 500여년을 지켜온 조선왕조는 막을 내리고 만다.

구방문을 통해 깨뜨렸다.
황제의 방문은 대구·경북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도로총조 등으로 군욕의 순종황제 어가길

로 개발이 일耽겨졌지만 전례가 없었던 순종황제의 병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당시 을사늑약과 군예해산 등으로 극심한 반일감정과
여기같은 당시 친일파로서 경북도 관찰사를 맡고 있던 박종현
이 순종황제의 대구방문 소식을 접하고 지역민을 동원해 밤을 새
워 대구역에서 달성공연까지 1천632명을 세로 만들었다.

한국의 복지운동이 있었고 특히 1970년대 대구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번져나온 국제보살운동을 방지할 경우 대구가 행방을 운동의 거점이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리 순종황제를 폐위 삼아 믿음을 무마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제가 대구의 지폐를 누르기 위해 달성을 했고 등용
으로 조성된 공원을 만들면서 축조된 신사에 황제가 직접 참배
하는 모습은 대구·경북인들에게 보여주는 일제와 비국민들의 응
수한 종교 숭배가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구 달성공원과 함께를 기념사업을 했던 이는 바로 베이비
는 그의 일생을 후원하면서 이곳에서 의사로서 의료 행사를 하였고 충주



항일정신의 거리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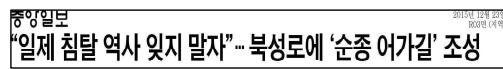
우선 중장기 경쟁 순位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대구읍성의 상징적 복원

여기에 대구읍성 사성로(坡城路) 중 2010년 등성로 디자인 개선 일정이 들어 올립니다. 특히 최근 경북도에서 성곽으로 디자인화 계획이 마련되어 사성로가 하나님의 블루도 네트워크로 대구읍성이 성장적으로 부활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맹장하고 있다.

윤성 대구 구청장은 “순종체에 어울길”的 역사적 복원으로 글씨와 문양을 악제한 구청의 드록을 문화적 풍조 및 역사적 문화의 흐름을 활용한 도심상의 구청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관 내 조선시대 불교계승사, 광목여왕과 코스피왕 등으로 상당수 활동한 화를 통한 현우도 금강관전 등 글과 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내 지역 내 유적·문화·문화재의 디자인 및 디자인 전문성을 확보해 대구를 대표하는 거의 하나인 복성도가 역사적 문화장으로 재탄생될 것이다”고 말했다. [\[길명기자\]pusik@kmtmail.com](mailto:[길명기자]pusik@kmtmail.com)



교육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홍경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東亞日報
대구 중구 ‘순종 어가길’ 복원사업 마무리 단계
2016년 03월 18C면 (4쪽)

70억 들여 거리 개선·조형물 제작
달성공원 입구엔 순종 동상도 설치
로 전망된다. 해당 구간이 달성공원~북성로 약 1km를 경비하고 북성로~서부로 1.6km에는 휴식 공간과 상장률 벽화거리가 설치했다. 인도

봉대백화점 대구점은 개인 경영 분광에 대한 계국의 마지막 행운이 순종여왕 1907~1910년의 발행권을 소비하는 전통을 설정하였다. 순종은 미판화제로 일제에 방해당하기 전인 1909년 1월 10일 전주 순종(이듬해나)을 두 달 만에 대구로 찾았으나, 이어금당수 수레를 빌려 대구에서 충주로 거쳐 경성(현 서울)을 찾았고, 수장동, 청계천 1km 구간을 걸어 다닌 일정이다. 이 무렵부터 일제나 난민들이 같은 뜻으로 '여기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실고 말했다.

다구 증인은 순종 '가기장' 복원사업이 아무 데도 좋지 않아 국립현대미술관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길도 개발해 근대문화로 쿠스로 활용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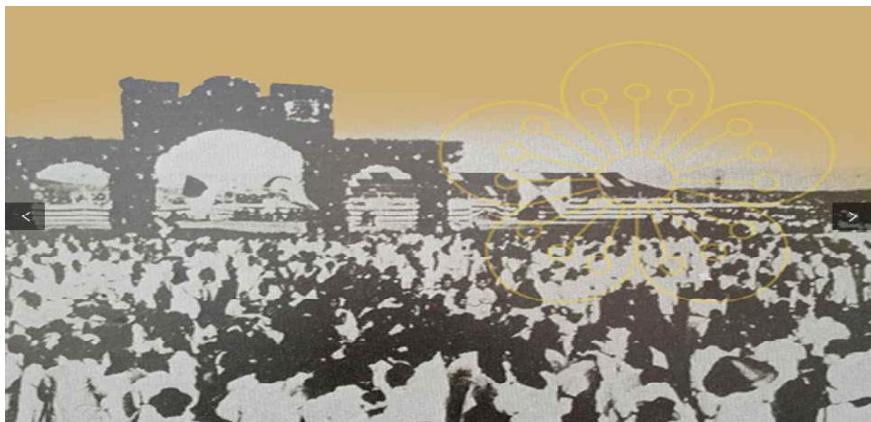
순종 증구장정은 "오늘의 대사를 만든 근 대 역사와 배운는 교육 행정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은 www.korea.go.kr

‘순종황제남순행로 조성사업’ 추진배경

1909년 순종황제는 대구를 방문하게 된다. 대한제국 황제 순종이 1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구, 부산, 마산을 순행(巡幸)한 것을 남순행,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평양, 신의주, 의주, 개성 등지를 순행한 것을 서북순행(西北巡幸)이라 한다. 이를 통칭하여 남서순행(南西巡幸)이라고 한다. 순행이 이토 히로부미, 통감부,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정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황제의 순행은 지방의 사정을 감찰하고 백성의 고통을 살핀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 순종황제를 내세워 반일 감정을 무마하고 통감정치의 정당성을 보여주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종은 남서순행을 마친 이듬해 1910년 한일병합의 공포조칙에 서명날인을 강요받았지만, 남서순행에서 만난 백성들의 광복에 대한 염원을 보았던 순종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내 한일병합에 서명하지 않았다. 남순 조칙에서도 드러나듯, 민심을 다스리되 결국 일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대한제국 황제의 순행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순종황제남순행로 조성사업』은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에 낙후된 골목길에 숨겨진 침탈의 역사에 대한 구국·항일정신을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역사를 재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역사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이다. 2.1Km의 순종황제남순행로 곳곳에는 황제의 열차를 막으려고 시도한 수창초등학교 학생들, 계몽운동 발상지인 우현서루 옛터, 국채보상운동 발원지 광문사, 거리벽화, 조형가벽 등 그 시대 속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출처: 중구 문화관광> 순종황제남순행로> 순종황제남순행로 조성사업

<https://www.jung.daegu.kr/new/culture/pages/culture/page.html?mc=1898>



전체보기

① 대구읍성 거리박물관 | ② 스토리조형가벽 | ③ 우현서루 옛터 | ④ 국채보상운동 발원지 광문사 터 | ⑤ 순종황제 남순역사공간 조성

⑥ 순종황제어가길 벽화 | ⑦ 북성로 공구골목 상징조형물 | ⑧ 순종황제어가길 상징조형물



1 대구읍성 거리박물관



2 스토리조형가벽



3 우현서루 옛터



4 국채보상운동 발원지 광문사 터



5 순종황제 남순역사공간 조성



6 순종황제어가길 벽화



7 삼성상회 터



8 북성로 공구골목 상징조형물



9 순종황제어가길 상징조형물

출처: 중구 문화관광> 순종황제남순행로> 순종황제남순행로 투어
<https://www.jung.daegu.kr/new/culture/pages/culture/page.html?mc=1918>

자. 기억 수업 활동 나눔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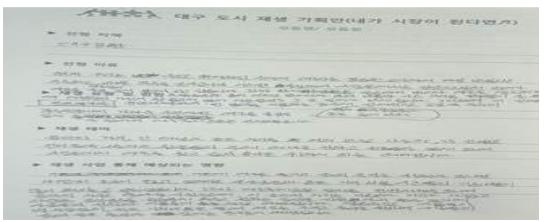
[성취기준 _ 기억의 공유] 통합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모둠별 공유할 주제선정, 내용구성, 발표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연번	내 마음을 움직인 발표자 발표주제	1. 주요 내용 (한 문장) 2. 내 마음이 움직인 이유 (한 문장)	비고
1	발표팀		
	주제		
2	발표팀		
	주제		
3	발표팀		
	주제		

차. 기억 수업 활동 자기 평가

- 자기평가 내용은 학생활동 결과 정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교과융합수업 체험캠프 참가이유?[기억수업 선택이유 포함]
- 교과융합수업 체험캠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이유?
- 교과융합수업 체험캠프 나눔 발표에서 우리 모둠의 발표주제와 주요내용, 나의 역할은?
- 교과융합수업 체험캠프 활동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새로운 점, 흥미로운 점, 아쉬운 점 등]

3. 수업 활동 모습

	
대구 도심재생 기획안 만들기[모둠활동]	모둠별 기획안 공유하기
	
순종어가길 전시물	순종어가길 전시물

4. 소감 및 정리

학생 ○○○: 내가 시장이 된다면 가정하고 도시 재생 기획안을 작성한 것이 재미있었고, 공간과 장소의 차이에 대해 몰랐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사물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역사적 기억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학생 ○○○: 도시 재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새롭게 재단장한 도시를 보면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순종어가길 조성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나는 순종의 동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준비하여 발표하였는데, 다른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